

은급재단 새로운 리더십 교체

민중기 목사 이임 · 10대 이사장 김정일 목사 취임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월 29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교단내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9대 이사장을 맡았던 민중기 목사가 이임하고, 10대 이사장으로 김정일 목사가 신임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사장 정태관 장모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 총회장은 “더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은급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운용하여 칭찬받는 임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 김정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권순달 전상목 윤완용 이사장 김부열 이종만 김종현 류제곤 박광일 목사가 각각 순서를 맡아 권면과 격려사, 축사를 전했다. 전 총회장 김원교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이날 민중기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그간 함께해 준 은급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신임이사장과 임원들을 위해 모든 교역자들이 힘써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김정일 이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무명하고도 합리적인 투자로 재단기금을 운용하겠으며, 가입자들의 소리를 잘 듣고 더 나은 연금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투자다변화를 통한 은급의 안정화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일 목사는 성결대학교와 성결교신학대학원, 단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내리교회 담임목사, 경기동지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드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가족으로는 김혜경 사모와의 사이에 두 형제를 두고 있다.

군경선교위, 기도와 응결된 힘으로 군선교 사명 감당 신년하례회 갖고 힘찬 출발...2026년 사업계획도 논의



군경선교위원회(위원장 임태진 목사)가 지난 1월 29일 영암교회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간담회의 시간을 갖고 군복을 회를 위한 지속적인 헌신과 비전을 다짐했다.

예배는 전 총회장 조일구 목사의 기도 후 위원장 임태진 목사가 “군경선교위원회 위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들의 후원과 더불어 응결된 힘을 가지고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낯선과 상관 없이 기도의 지리에 모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군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승리하길 기도하자”고 설교했다.

이날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들도 오고 갔다. 군경선교위원회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아크부대 위문, 군선교주일, 군선교관계자 부대방문행사, 군복 및 군선교사 수련회, 사랑의 운차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군경선교위원회는 2025년에는 5명 내외의 정기후원회원이, 2026년 들어 10명(10교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총회 군선교부부장 조일구 목사와 함께 우리 교단의 군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며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정

총회장 홍사진 목사

- 2.3 제주전도지방회 예배
- 10~11 한성연 수련회
- 12 총회 임원회의
- 19 웨슬리언 교단장 모임
- 20 총회 실행위원회 안성중앙교회 저녁 집회
- 23 한교총 법안 이사회
- 24 서울 중부지방회 참석
- 25 3.1절 기념 예배(광명교회)
- 26~27 여성부흥회사 정기총회
- 27 한교총 대표회장 회의
- 28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오는 28일 정기총회

‘성결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주제로 성결대학교서

제39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오는 28일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170여 명의 남전회 회원들이 모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성결복음을 세상 끝날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개회예배 설교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세미나는 남부교회 박요섭 목사가 나서서 시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이장호 장로는 “많은 회원들이 동



지난 2025년 2월 비산동교회에서 진행된 38회 정기총회 모습. (가운데) 총회장 홍사진 목사, (오른쪽) 박요섭 목사, (왼쪽) 이종만 목사

총회주관 ‘목회신학 원 포인트 세미나’ 개최

‘아모스의 영성’ 주제로 3일간 진행

총회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목회신학 세미나 2026년도 첫번째 세미나가 지난 2월 2~4일까지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새해들어 첫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성결대학교 말씀사랑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강사로는 독일 본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한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와 프리토리리아대학에서 설교학을 전공한 성결대학교 오현철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서 ‘아모스의 영성’을 주제로 3일간의 일정속에서 진행됐다.

차준희 교수는 ‘아모스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강의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부러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아모스서는 당시 시대상과 히브리어 원어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까다로운 예언서임을 전



제하고 ‘아모스의 하나님은 약자를 외면하는 예배와 예배자를 조롱하시는’,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한 자를 벌하시는’, ‘믿는 자의 탐욕을 재려보시는’ 분노로,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이다. 자녀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지고 훈계하신다” 말하고,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공동체를 위한 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12)

<요셉 리더십 학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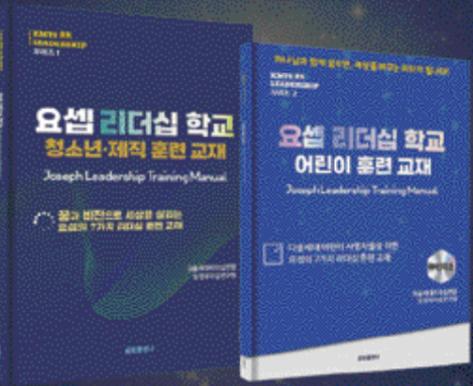
영성 + 실력 — 하나님 나라의 다음세대 리더십 공식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스펙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 삶으로 증명되는 리더십의 틀입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리더십 구조였습니다. 요셉의 여정 속에는 다음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7가지 리더십의 축이 있습니다.

요셉의 7가지 리더십

1.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품는 리더
2. 굴절과 배려: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리더
3. 성실과 실력: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실력을 쌓는 리더
4. 지혜와 지식: 말씀과 배움으로 계속 성장하는 리더
5. 언어와 국제 감각: 세상과 담대하게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6. 계산과 문제 해결: 위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리더
7. 생명과 사랑: 자신의 성공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



요셉 리더십학교는

이 7가지를 설교가 아니라 커리큘럼으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훈련으로 나눕니다.

교재 및 세미나 문의: 010-8864-6765 | 이메일: glimleadership@gmail.com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호남전도지방회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부회장 조일형 목사
함께하는교회



서기 성문모 목사
상만교회



회계 표명찬 목사
청산제일교회

회원교회

- 공향리교회(한덕수 목사)
- 상만교회(성문모 목사)
- 아름다운교회(강일용 목사)
- 운남제일교회(구본삼 목사)
- 월송성결교회(이영구 목사)
- 진도복된교회(이승경 목사)
- 청산등대교회(임종광 목사)
- 청산제일교회(표명찬 목사)
- 팽목성결교회(김성욱 목사)
- 함께하는교회(조일형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호남전도지방회